

# 낮선 고성에 보금자리 만들고 새출발

##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결혼이민자 동거부부 5쌍 합동결혼식 ... 거진읍 박태연·박세나 부부 등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고성지역 결혼이민자 가정 5쌍이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의 도움으로 합동결혼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달 29일 대명콘도 별관 6층 동백홀에서 내빈 및 하객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발'이라는 주제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대명콘도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는 △거진읍 용하리 신랑 박태연 신부 박세나 △죽왕면 구성리 신랑 한두현, 신부 한에든디 △거진읍 신랑 함

종남, 신부 함메리 △현내면 배봉리 신랑 박상만, 신부 윤혜경 △현내면 명파리 신랑 서달식, 신부 흰틴검린 등 5쌍이 결혼식을 가졌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고성지역에 보금자리를 만든 이민자 동거부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낮선 이국땅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백옥식 시민기자



지난달 29일 대명콘도에서 열린 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에서 5쌍의 가정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산/불/조/심

## 술취해 부두 서성이던 30대 남 '풍덩'

### 간성 주민 지난달 30일 속초서 ... 긴급 출동 해경에 극적 구조

#### "수온 낮아 사망 위험" 실족주의 당부

새벽까지 술에 취해 부두 주변을 서성이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죽을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께 속초시 중앙동 갯배선착장 부두 주변을 배회하다가 발을 헛디뎈 바다에 빠진 홍모(33세, 간성읍)씨를 어업인과 합

동으로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갯배선착장 부두 주변을 배회하다가 바다에 빠졌으며, 안벽이 높아 자력으로 나오지 못한 채 30여분간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새벽 시간이라 지나가

는 행인이 없어 힘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침 조업 준비를 위해 부두에 나온 김모씨(신창호 선장)가 살려달라는 인기척을 듣고 해경에 신고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온이 낮은 계절에 바다에 빠질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어두운 밤에 물량장, 방파제 등 해상 인접 지역을 통행할 때는 실족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바/로/잡/습/니/다

본지 10월 31일자(제36호) 5면에 보도된 '울곡전우회 간담회 개최' 관련 기사 중 '울곡전우회는 88여단과 33사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는 내용 가운데 33사단은 22사단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이점 울곡전우회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 고성신문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고성신문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행정과 주민의 가교·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지역 주민들의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기구독이 고성신문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구독료 납부 방법

- ① 통장 자동이체
- ② 지로 납부
- ③ 직접 납부(통장, 사무실)

◇구 독 료 : 월 4,000원(1년 선금 4만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72-9350-81

◇예 금 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주식회사 고성신문

문의 ☎033-681-1667